

설득력 있어 보일 뿐인 것도 수사학의 소관사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나오는 '설득력 있는' 것의 인식적 지위-

한석환*

목 차

- I. '설득력 있어 보일 뿐인' 것과 수사학의 학적 전문성
- II. 설득력과 진리
- III. '기술'로서의 수사학
- IV. 맺음말: 수사학의 학적 독자성

<국문초록>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력 있는' 것과 '설득력 있어 보일 뿐인' 것을 통찰하는 일이 수사학의 소관사라는 입장이다. 학인 한에서 수사학이 무엇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고구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게 없다. 그러나 겉으로 설득력 있어 보일 뿐인 것이 수사학의 관할에 속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구나 설득력 있어 보일 뿐인 것이라는 것이 겉으로만 설득력 있어 보일 뿐 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할진대 기만의 여지까지 함축한다. 따라서 그와 같이 관할을 규정하는 것은 수사학의 오용의 물음을 낳는다. 이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겉으로 설득력 있어 보일 뿐인 것을 수사학의 관할 하에 두는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는 바, 이것이 이 글이 구명하려는 것이다.

먼저 설득력 있어 보일 뿐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핀 다음,

* 숭실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거기에 수반되는 수사학적 기만의 물음을 논한다. 한편 수사학의 과제인 설득력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탐색하려면 그것이 참된 것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참된’ 것과 ‘참된 것과 유사한’ 것을 논하는 이유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해 결과적으로 설득력 있는 것이 무엇인가와 그것의 인식적 지위가 밝혀진다. 수사학이 어떤 학인가에 대한 이해는 덤으로 얻는 수확이다.

핵심어: (기술적) 기만, 설득력 (있는 것), (수사학의) 오용 가능성, 참된 것(과 유사한 것), 수사학의 전문성

‘설득력 있는 것과 설득력 있어 보일 뿐인 것을 통찰하는 것은 동일한 능력의 소관사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 I권 1장에서 다룬 내용을 그 장의 끝부분(1355b7-21)에서 요약하는 가운데 하는 말이다. 그의 경우 ‘설득력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무개에게’ 설득력 있다는 뜻이다. 기본적으로 연설의 청자, 즉 설득되는 ‘주체’가 고려된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 있는’ 것과 ‘설득력 있어 보일 뿐인’ 것을 구별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득력 있다는 것을 청자에게 ‘주관적으로’ 나타난 모종의 영향만으로 평가할 심산이 아님을 시사한다. 그러나 설득력(있음)은 설득력 있어 보일 뿐인 것 하고만 구별되는 게 아니라 참된 것(진리)과도 구별된다. 그러기에, 그렇다면, 즉 이도저도 아니라면 설득력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물음이 제기된다. 설득을 당하는 주체의 눈에 설득력 있어 보일 뿐인 것과 구별됨으로써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도 평가받을 각오가 내비쳐지긴 하지만 다른 한편 진리외도 구별되기에 양자와 다른 제3의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에 ‘설득력 있다’와 관련된 여러 물음을 검토함으로써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설득력(있음)의 정체를 확인하고자 한다.)¹⁾

1) ‘설득력 있다’란 그리스어 표현 ‘*pitbanon*’의 역어로서 설득과정에 투입되어 ‘설득을 일궈낼 수 있다’를 뜻한다. 그런 점에서 아래에서는 문맥에 따라 ‘설득인자’, ‘설득적인’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력 있는 것과 설득력 있어 보일 뿐인 것의 구별을 부각하기 위해 연역과 ‘겉보기만의 연역’의 구별을 끌어들인다. 이로써 설득의 물음은 소피스트술과 변증법의 차이의 물음으로도 이어진다. 사태가 얽혀 있는 만큼 후자 역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초점은 어디까지나 설득력 있는 것(의 인식적 지위)에 맞춘 채 그 물음의 해명에 도움을 받는 한에서만 고려한다. 이 같은 논의는 결과적으로 설득력 있는 것의 통찰을 학적 과제로 삼는 수사학의 학적 면모를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한다.

I. ‘설득력 있어 보일 뿐인’ 것과 수사학의 학적 전문성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문제가 되는 설득력 있는 것과 설득력 있어 보일 뿐인 것이 언급되는 텍스트부터 살피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문제의 대목을 옮겨 적으면 다음과 같다.

[R1] 그밖에도 (분명하거니와) ‘설득력 있는’ 것과 ‘겉으로 설득력 있어 보일 뿐인’ 것을 통찰하는 것은 동일한 (능력)에 속하는 일이다. 변증법에서도 ‘연역’과 ‘겉으로 연역 같이 보일 뿐인’ 것이 그렇듯이 말이다.(1355b15-17)

인용문을 풀어쓰면 다음과 같다. ‘연역’과 ‘겉으로 연역 같이 보일 뿐인’ 것을 통찰하는 일이 변증법이라는 하나의 능력의 관할 하에 들듯이 ‘설득력 있는’ 것과 ‘설득력 있어 보이는’(to phainomenon pithanon) 것을 통찰하는 일 역시 수사학이라는 하나의 능력(dynamis)에 속한다. 관심의 표적은 설득력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이다. 그리고 그것이 설득력 있어 보일 뿐인 것과 대비되고 있다. 그러면 다시금, ‘설득력 있다’의 배경에 놓

것이라는 표현도 같은 의미로 함께 사용한다.

인 ‘설득력 있어 보일 뿐인’ 것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것인가. 이런 물음을 캐묻다 보면 (1) 어찌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겉으로 설득력 있어 보일 뿐인 것까지 수사학의 학적 관할 하에 두는지와 (2) 설득력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점차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1. ‘설득력 있어 보일 뿐인’ 것의 개념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설득력 있다’(pithanon)는 것은 (문법적으로) ‘누군가에게 설득력 있다’(tini pithanon)는 것이다(1356b26). 설득을 당하는 대상이 늘 있기 마련이다. 그러기에 설득력 있다는 것은 관계적 내지 상대적으로 기술될 수밖에 없다. 설득적이라는 것이 (문법적으로 볼 때) 사안에 ‘절대적으로’ 혹은 ‘단적으로’ 속해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문제의 사안을 설득력 있다고 받아들이는 청자에게만 발휘되는 것이 설득력인 것이다. 그렇다면 설득력 있어 보일 뿐인 것이 ‘특정의 아무개에게’ 설득력 있는 것인데 반하여 실로 설득력 있는 것은 ‘단적으로’ 설득력 있는 것인가. 그렇게 구별할 순 없다. 어떤 식의 것이든지 간에 청자 요인이 배제된 채로는 설득력(있음)이 제대로 검토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설득력 있다는 것이 진리와 구별되는 대목이 바로 이 지점, 즉 청자 연계성이다. 청자와 무관하게 구성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설득력 있는’ 것이 ‘참된’ 것으로 분류될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할진대, 설득력 있어 보일 뿐인 것과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설득력 있다(pithanon)는 것이 (두루) 인정받는다(endoxon)는 것과 연계되어 있다는 데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이 대목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용문 [R1]에서와 같이 변증법을 참조한다.

[R2] 수사학 역시 마찬가지여서, 이를테면 소크라테스나 히피아스에게 (인정받듯이), 특수자에게 인정받는 의견이 아니라, 변증법이 그러하듯, 이리이러한 성향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고찰한다.(1356b32-34)

설득력 있다는 것이 그러하듯 (두루) 인정받는다는 것 역시 상대적이다. 『토피카』 I권 1장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하는 바에 따르면 ‘널리 인정받는’ 의견이란 (1) 모든 사람에게 옳다고 간주되거나 (2) 대부분의 사람에게 그리 간주되거나 (3)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그리 간주되는 의견을 가리킨다. 지혜로운 사람들 역시 (3a) 모든 지혜로운 사람, (3b) 대부분의 지혜로운 사람, (3c) 가장 널리 알려졌거나 아주 높은 정도로 인정받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뉜다(100b21-23). 이 같이 널리 인정받는 의견을 전체로 삼아 만들어지는 것이 변증법적 추론이다.

이 같은 변증법과 대조적인 것은 쟁론술(*eristikē*)이다. 쟁론술이란 ‘다투기를 좋아하는, 특하면 싸우는’(*eristikos*) 소피스트들의 전유물 같은 것으로서 그것과 변증법의 결정적인 차이는 전자의 연역(추론)이 위와 같은 형식을 취하긴 하나 빛 좋은 개살구마냥 실상은 그렇지 않은 데에 있다. 그 전체가 겉으로 보면 널리 인정받는 의견 같이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탓이다(100b24-25). 상대의 논변을 (성공적으로) 논박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기에 목표 달성에 효과적이다 싶으면 진위 가릴 것 없이 마구 투입하기 때문이다.²⁾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T1] 인정받는 의견 같이 보인다고 해서 다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언급된 인정받는 의견들 가운데는, 쟁론술적 논변의 원리와 달리, 자신이 가공적인(*phantasia*) 것임을 표면에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쟁론술적 논변의 경우는 오류의 진상이 일반적으로 (전체를) 조금 개관할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일지라도 누구에게나 곧바로 확연히 드러난다.(100b26-101a1)³⁾

2) 쟁론술의 이해를 위해서는 Terrence H. Irwin, “Plato’s Objection to the Sophists”, *The Greek World*, London: Routledge, 1995, 585쪽 참조.

3) 풀이 표현하면 이렇다. 즉 인정받는 의견 같이 보인다고 해서 모두가 다 (실로) 인정받는 의견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언급된 (겉으로만) 인정받는 의견들 가운데서, 자신이 (실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인정받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의미의) 가공적인 것임을 표면에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는 전무하기 때문이다(다들 속내를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쟁론술적 논변의 원리(전체)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여기서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정이 너무도 노골적이어서 논변의 전모를 조금만 살필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같은 사정을 알아차리지 못할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겉으로 인정받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실로 인정받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 실상은 판관인 의견도 있다. 그렇다면 ‘설득력 있다’와 (두루) ‘인정받다’의 연계성을 근거로 우리가 묻고 있는 ‘겉으로 설득력 있어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가늠해볼 수 있다. ‘겉으로는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실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겉으로 설득력 있어 보일 뿐인 것은 일견해서는 설득력을 발휘하는 듯 싶는데 조금만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 금세 설득력을 상실하는 것을 가리킨다. 좀 더 면밀한 검토 끝에 ‘설득력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과 유사해 보여 설득력 있는 것으로 착각을 일으킨 것이다. 어쨌든 설득력과 관련해서도 이런 유의 것이 있다는 것인데 착각(의 발생)과 관련해서도 쟁론술적 논변의 규정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토피카』 I권 1장에서 쟁론술적 논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T2] 쟁론술적인 것(연역)은 (1) 겉으로는 널리 인정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의견에서 출발하는 연역이거나 (2a) (실로) 널리 인정받는 의견에서 출발하여 겉으로만 (연역되는 것 같이 보이는) 연역, 혹은 (2b) 겉으로 인정받는 것 같이 보일 뿐인 의견에서 출발하여 겉으로만 (연역되는 것 같이 보이는) 연역이다.(100b23-25)

[T3] 언급된 쟁론술적 연역들 가운데서 첫 번째 것(1)은 ‘연역’(syllogismos)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후자(2ab)는 ‘쟁론술적’ 연역이라고 할 수는 있을 테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연역’이라고 할 수는 없다. 겉으로 연역 같이 보일 뿐 실은 연역이 아니기 때문이다.(101a1-4)

인용문 [T2]의 (1)의 경우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쟁론술적 논변의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연역에 전제로 투입된 것이 ‘겉으로는 널리 인정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의견으로서 ‘다른’ 확신이나 ‘장기간에 걸쳐’ 정립된 확신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이다. 바꿔 말하면 전제들 간에 모순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런 일의 발생의 원인(유일

한 원인은 아니지만 하나의 원인)은 유사성이다. 실로 인정받는 의견들과 유사해 보이기에 인정받는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전체에 투입되는 것이다. (그러나 뒤에 가서는 결국 그것의 가면이 벗겨지면서 정체가 드러난다.)

(2)의 경우는 출발점이 널리 인정받는 의견(a)인가 겉으로 인정받는 것 같이 보일 뿐인 의견(b)인가에서 차이가 날 뿐 연역(의 과정) 자체가 기만적이라는 데서는 다르지 않다. 연역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 연역(설로기스모스)의 조건이나 ㉡ 변증법적 연역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에 연역이 아닌 것이다.⁴⁾ 논리적 필연성을 지닌 연역이 이뤄지더라도 하는 것처럼 기만이 행해지는 것이다. 『소피스트술적 논박을 논함』에 나오는 한 예가 (2)의 경우를 웅변으로 말해준다.⁵⁾

[S1] 하나(A)가 있으면 반드시 다른 하나(B)가 있기에 (사람들은 흔히) 이것(B)이 있으면 반드시 저것(A)이 있다고 생각한다. (...) 비가 오면 땅이 젖기(마련이기)에 우리는 땅이 젖어 있으면 비가 왔다고 생각한다.(167b2-8)⁶⁾

인용문 [T3]에 따르면 (2ab)의 경우는 (딱히 달리 부를 명칭이 없어) 쟁론술적 ‘연역’(설로기스모스)이라고 부르지만 단적으로 말하면 ‘연역’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연역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쟁론술적’이라는 수식어는 그러니까 설로기스모스(연역)라는 유(類)에 속하는

-
- 4) 연역의 정의: “연역이란 어떤 것이 상정된 조건 하에서, 상정된 것을 매개로, 상정된 것과 다른 어떤 것이 필연적으로 귀결되는 논변이다”(100a25-27). 변증법적 연역의 정의: “그(논증)에 반하여 변증법적 연역은 널리 인정받는 의견들에서 출발하여 진행된다”(100a29 이하). 요컨대 연역이란 ‘전제-결론’ 형의 논변으로서 논리적 필연성이 그 생명이다. 변증법적 연역에는 연역의 조건 외에 ‘널리 인정받는 의견’, 즉 통념을 전제로 삼는다는 조건이 추가된다.
 - 5) 문제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을 한국어로 통상 ‘소피스트적 논박’이라고 번역하나 개별 소피스트가 아니라 그들의 ‘수법’, 즉 소피스트술(*sophistikē*)에 기초해 행해지는 논박이라는 점을 반영한다면 ‘소피스트술적 논박’이라고 하는 편이 나아 보인다.
 - 6) 비가 오면 땅이 젖기 마련이다. 그러나 땅이 젖어 있다고 해서 비가 왔다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 논리적 오류(후건긍정의 오류)를 범하는 게 된다. 그 같은 추론에는 논리적 필연성이 없다. 물론 그런 경우가 없지 않지만 그것이 유일무이한 원인(필요충분조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정의 종(種)을 한정하는 게 아니다. 거기서는 설로기스모스라는 유의 그 어떤 실질적인 중도 문제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⁷⁾

(1)의 경우는 전제로 투입된 문제의 의견이 말하자면 ‘무늬만’ 설득력 있어 보일 뿐 실상은 그렇지 않아서 문제이고 (2)의 경우는 연역의 과정이 기만적이어서 문제이다.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건 저런 식으로건 쟁론술적 연역에는 ‘거짓’이 묻어 들어와 있다. 변증법의 영역에서 쟁론술적인 것이 그리하다면 수사학의 영역에서는 겉으로 설득력 있어 보일 뿐인 것의 사태가 딱 그 짝이다.

2. 수사학의 기술적 전문성의 통제를 받는 기만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겉으로 설득력 있어 보일 뿐인 것 역시 수사학의 소관사이다. 한편 이제까지 논의한 바에 따르면 겉으로 설득력 있어 보인다는 것은 ‘겉으로는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실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겉으로 설득력 있어 보인다는 것은 일견해서는 설득력을 발휘하는 듯싶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금세 설득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왜 설득력을 상실하는가. 실로 설득력 있는 것과 유사해 보이기에 설득력이 있기라도한 것처럼 착각하였기 때문이다. 기만을 당한 것이다. 이로써 기만이 수사학의 전문성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는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처음 보는 수사학의 면모가 아니다. 기만은 전통적으로 수사학의 일로 간주되었다.

플라톤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그는 『파이드로스』에서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한다(262a). “다른 사람은 속이되 자신은 속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사물들 간의 유사성과 비유사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다루는 사물의 (참된) 진상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왜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물들이 유사한지 유사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사한지 유사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능력이 없다면 상대방이 다루

7) Tim Wagner & Christof Rapp, *Aristoteles. Topik. Übersetzung und Kommentar*. Stuttgart: Reclam, 2004, 271.

는 사물을 유사하게 만듦으로써 속이는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사함과 유사하지 않음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필수조건이 아닐 수 없다. 기만의 물음이 기술적 전문성의 영역에 속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수사학』 I권 1장 말미에서 겉으로 설득력 있어 보일 뿐인 것 역시 수사학의 관할 사항이라고 천명함으로써 아리스토텔레스는 전래의 수사학의 구성부분으로 잘 알려진 이른바 기만의 문제가 수사학의 전문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되면 수사학의 오용의 물음이 제기된다는 데 있다. 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오용이란 모름지기 의 지적 선택(*prohairesis*)의 문제이지 역량 내지 전문성(*dynamis*)의 물음이 아니라고 잘라 말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일축한다.

무지하거나 무능하여 기만을 당하는 것은 순진한 우매이다. 실천적 사례분별(*phronēsis*)을 갖춘 성숙한 인격은 결단만 내린다면 못할 게 없지만 길이 아니기에 발을 내딛지 않을 따름이다. 비유컨대 칼은 유비무환의 방책으로서 유사시를 위해 칼집에 꽂아둔다. 또 그럴 때 위엄이 있다. 손에 쥐어져 있다고 아무 때나 마구 휘두른다면 그것은 인명살상의 흉기지 자위를 위한 유용한 도구가 아닐 터이다. 기만의 물음이 기술적 전문성의 관할 하에 놓임으로써 기만의 자의적 행사가 통제를 받는다. 기만을 수사학의 전문영역에 편입시키는 것은 기만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다. 외려 기만을 통제가 가능한 범위 안에 가두어 둠으로써 발호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상대방이 기만을 획책하는 경우 그것을 간파해냄으로써 상대방의 술책에 말려들지 않기 위함이다.⁸⁾

8)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수사학과 변증법은 서로 조응하는 관계에 있다. 그러기에 변증법과 관련하여 그가 취하는 많은 조치는 그의 수사학을 이해하는 데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그가 『소피스트술적 논박을 논함』의 1장에서 쟁론술 내지는 소피스트술적 사이버추론을 논하는 일과 관련하여 내놓는 정당화도 그런 사례 중 하나인 바, 그것은 (적절한 변경을 가하기만 한다면) 수사학에도 잘 들어맞는다. 그에 따르면 “그(얇이 있는 사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서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범하는 오류를 포착해 내는 것, 이것은 모든 영역에서 ‘얇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과제이다.”(165a24-27).

의지적 선택과 학적 전문성의 물음과 관련, 『수사학』 I권 1장 끝머리에 나오는 소피스트술과 변증법의 대비(1355b17-21)는 수사학에 대해 함의하는 바가 많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소피스트술은 능력의 물음이 아니라 의지적 선택의 물음이다(*Met.* IV 2, 1004b22-25). 이를 수사학의 영역에 대입하여 말하면 기술이론에 기초하여 작업하는 연설가는 ‘앎’에 터잡은 연설가이다. 그러나 기술이론에 기초하지 않은 채 작업하거나 기술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긴 하나 특정의 의도를 가지고서 작업하는 연설가는 ‘의지’를 따르는 연설가이다. 그가 따르는 의지란 변증법의 영역에서 소피스트의 의지적 선택에 대응하는 의지이다.

변증법의 영역에서 소피스트로 분류되는 건 그의 의지적 선택으로 인함이지만 변증법·전문가로 분류되는 건 그의 능력 때문이지 의지적 선택 때문이 아니다. 수사학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기술(학)을 통하여 전문역량을 갖추었기에 연설·전문가(수사학자)라고 불리는 것이지⁹⁾ 어떤 의도의 유무로 그리 불리는 것이 아닌 것이다.

II. 설득력과 진리

위에서(I절) 말했듯이 설득력(있음)에는 설득을 당하는 대상이 늘 따라 붙는다. 그런 점에서 설득력(있음)은 ‘청자 상대적으로’ 기술될 수밖에 없다. 설득력이라는 것이 ‘사안에 절대적으로’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¹⁰⁾ 문

9) 학적 구비조건을 완비한 수사학에서 ‘설득력 있는 것과 유사하긴 하나 실로 설득력 있지는 않은’ 것을 다룰 줄 아는 능력 내지 전문성은 ‘겉으로는 그리 보여도 실은 엔튀메마가 아닌’ 것을 다루는 데서 발휘된다. 위에서 보았듯이 하나의 논변이 연역일 수 있다. 그러나 연역 같이 보여도 얼마든지 연역이 아닐 수도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엔튀메마(수사추론)는 일종의 연역이다. 그러기에 수사학적 논변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하나의 논변이 엔튀메마일 수 있다. 그러나 엔튀메마 같이 보여도 엔튀메마가 아닐 가능성 역시 상존한다. 엔튀메마의 외양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같은 유의 ‘외양만의’ 엔튀메마도 수사학의 전문영역의 테두리 안에서 논한다. 한편 그는 그 일환으로 그 같은 ‘무늬만의’ 엔튀메마를 형성하는 데 요긴하게 쓰이는 토포스를 『수사학』 II권 24장에서 따로 논한다.

제의 사안을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고 받아들이는 청자에게만 발휘되는 것이 설득력이다. 그러기에 ‘청자가 다르면’ 설득력에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설득력이 아무리 청자 요인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설득력이 하나의 주관적 범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기술인 한에서 수사학의 고구 대상은 특수한 경우의 설득력이 아니기 때문이다(1356b29-34). 설득과 관련해서는 주관주의적 이해가 받을 붙일 수 없다.

설득과 관련하여 주관주의적 이해가 통하지 않는 것은 비단 수사학의 학적 고구 대상이 특수자가 아니라는 사정 때문만은 아니다. 설득력 있는 것과 설득력 있어 보이기만 할 뿐인 것이 구별되는 사정(1355b7-21) 역시 설득력의 주관주의적 이해의 길을 가로막는다. 어쨌거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미루어 보건대 『수사학』에서 말하는 설득력이란 원칙적으로 상대적이긴 하지만 충분히 객관적으로 기술이 가능한 어떤 것이다.

1. 설득력과 진리의 평행성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진리와 설득력이 서로 다른 궤도상에 있지만 양자가 그리는 궤적은 늘 평행선을 유지한다. 양자가 이렇게 평행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설득력에 대한 위와 같은 이해, 즉 객관적 기술이 가능하다는 데에 기인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 기본적으로 상정되는 바에 따르면 증명하는 일과 설득하는 일, 배워 익히는 일과 설득되는 일, 한마디로 말해서 진리와 설득력은 평행선을 그린다. 바꿔 말하면 진리와 설득력의 추구하는 방향이 원칙적으로 다르지 않거나와 양자가 뿌리가 같은 하나의 도식에 의해 틀지어진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사학적 설득이 학적 가르침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적 가르침과 모든 면에서 조율됨으로써 수사학적 설득이 지속적으로 개선된다는가 하는 것도 아니다. 다른 궤도 위를 나란히 움직일 따름이다.

10)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 I권 3장에서 연설을 세 가지 계기, 즉 연제, 연사, 청자를 기초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같은 기초 위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설득의 형성은 구조적으로 변증법적 연역에 대응한다(1355a3-20). 이러한 입장을 떠받치는 기둥은 크게 둘이다. 설득의 형성이 변증법적 공방과 학적 증명의 근간을 이루는 연역적 구조를 띤다는 점이 하나이고 수사학적 설득이 출발하는 명제와 상정의 성격이 다른 하나인 바, 그것은 ① 학의 참된 명제와 ② 변증법적 공방에서 그 질이 검증된 상정들과 방향성에서 원칙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이로써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이해의 저변에 깔려있는 설득에 대한 그의 이해가 백일하에 드러나는 바, 그의 경우 설득은 학적 증명과 평행하는 것으로, 그러기에 배우고 익히는 과정과 평행하는 것으로 기술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학적 증명이란 참됨이 입증된 원리에서 출발하여 하나의 연역적 논변을 구축하는 일이다. 그리고 문제의 논변에서는 제3의 명제가 도출되는 바, 문제의 명제의 도출과 관련하여, 명제들 간의 논리적 연결 관계가 명확하게 설명된다. 수사학적 설득의 진행 역시 이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학적 증명이 ‘참됨이 입증된’ 원리에서 출발한다면 수사학적 설득은 ‘청자에 의해 인정받은’ 명제에서 출발한다. 학적 증명에서 제3의 명제가 도출되듯 설득에서도 청자에 의해 인정받는 명제로부터 (다른 전제들의 지원 하에) 제3의 명제가 연역된다. 그리고 이렇게 연역된 명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자에 의해 받아들여진다. 연역된 명제를 청자가 (이미 인정된 것의 기초 위에서) 증명되었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학적 증명과 수사학적 설득이 구조적으로 평행한다는 입장이다. 학적 증명(과, 따라서 가르치는 일)과 설득 사이에 건너뛸 수 없는 차이가 없지 않지만 그렇더라도 진리와 설득력이 이처럼 큰 틀에서 평행하기 때문에 진리를 드러내 보이고 증명하는 일과 설득하는 일은 서로 배척하지 않다. 오히려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기까지 하다. 그런 사례는 여러 대목에 드러나 있다. 요컨대 연설가가 진리와 설득의 평행성의 덕을 보는 경우는 언제냐면 그가 ‘사안에 기초하여’ 논변을 펴는 한편 ‘참된 것을 따라’ 논변을 펼 때이다(1355a37-38; 1365b25). 진리와 정의가 본성상 그 반대의 것보다 설득력에서 비교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이고 그러기에 설득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1355a21-22).¹¹⁾ 여쭙서 용이한

가. 본성상 설득력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진리(와 진리를 닮은 것)의 힘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기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의 경우 연설가가 도덕적인 동기나 철학적인 동기에 의해 좌우될 필요가 없다. 그저 사안 중심으로 그리고 증명 위주로 연설을 행하면 그만일 따름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학인 한에서의 수사학에는 진리를 속이거나 진리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그 어떤 경향성도 들어있지 않다.

2. 개념 쌍 {‘설득력 있는’ 것/‘설득력 있어 보일 뿐인’ 것}과 {‘참된’ 것/‘참된 것과 유사한’ 것}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설득력 있는’ 것과 ‘설득력 있어 보일 뿐인’ 것이라는 개념 쌍이 있는 한편 ‘참된’ 것과 ‘참된 것과 유사한’ 것이라는 개념 쌍도 있다. ‘참된 것과 유사한’ 것이란 무엇이고 그것은 또 ‘설득력 있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해당 대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R3] ‘참된’ 것과 ‘참된 것과 유사한’ 것을 통찰하는 일은 동일한 하나의 능력의 소관이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에게는 본성상 참된 것을 (포착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갖추어져 있거나 또 대체로 진리를 맞힌다. 그러하기에 널리 인정받는(*ta endoxa*) 의견을 탐색하는 일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진리를 맞히는 능력의 소유자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1356b14-18)

‘진리 비슷한 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허위이거나 거짓인 것은 아니다. ‘진리 비슷한 것’이란 현재의 상태로는 참된 명제의 학적 표준에 못 미치

11) 이처럼 참된 것, 정당한 것이 그 반대의 것보다 설득력에서 상대적으로 우세하거늘 공적연설에서 그 반대의 것에 밀린다면 그것은 오롯이 연설가의 역량 부족 탓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수사학은 그같이 자연에 거스르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차원에서 강구된 일종의 지적 장치이다. 주어진 사안의 합리성(*logos*: 1355a38)에 역행하는 조건 하에서도 합리성이 관철되도록 지원하는 합리성의 자구장치인 셈이다.

지만 그렇다고 진리의 요소가 없지 않은 의견, 혹은 적절한 방식으로 명료화되거나 정초될 것 같으면 명실상부하게 참된 명제로 어렵지 않게 등극할 수 있는 의견을 가리킨다.¹²⁾ 위에서 보았듯이 설득력은 진리와 구조적으로 나란히 움직이지만 (평행한다는 데에 드러나 있듯이) 양자가 서로 일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설득력 있는 것에 진리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함축되어 있지도 않다. 오히려 그 반대다. 설득력 있는 것에 어떤 식으로든 진리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에 양자의 평행성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긴 하지만 설득력 있는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참인 것은 아니다. ‘진리와 유사하기만 할 뿐인’ 것도 충분히 설득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개념 쌍 ‘설득력 있는 것/겉으로 설득력 있어 보일 뿐인 것’과 개념 쌍 ‘참된 것/참된 것과 유사한 것’ 사이에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3. 진리 포착 능력과 그것의 설득력에 대한 함의

위의 인용문 [R3]에 따르면 “‘참된’ 것과 ‘참된 것과 유사한’ 것을 통찰하는 일은 하나의 동일한 능력의 소관이다”. 이와 관련하여 쿠퍼(Cooper)가 내놓은 논평은 문제의 인용문의 이해의 단서로 삼기에 안성맞춤이다. 그에 따르면 “제한된 의미에서 그것들(=변증법과 수사학)에는 ‘진리와 유사한’ 것뿐만 아니라 진리 자체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¹³⁾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문제의 대목에 이르기까지 그가 무엇을 역설했는지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가 그때까지 쫓던 논변은 다름 아니라 본래적인 의미의 수사학은 증명에 기초하여야 하고 그 같은 증명 중심의 수사학은 변증법

12) Christof Rapp, *Aristoteles. Rhetorik. Übersetzung, Einleitung und Kommentar*. Berlin: Akademie, 2002, II 77.

13) John M. Cooper, “Ethical-Political Theory in Aristotle’s *Rhetoric*”, in: *Aristotle’s Rhetoric. Philosophical Essays*, edd. by David J. Furley & Alexander Nehama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208.

(의 원리)을 끌어다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지에 비추어 본다면 [R3]의 언급은 어쩌서 수사학이 변증법과 동일한 능력으로 환원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는 셈이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R3] 직전에 설로기스모스(연역)의 전문가는 수사학과 변증법의 차이를 자신의 작업에 반영한다면 수사추론(엔튀메마)에도 적임(1355a10-14)이라고 말한다.¹⁴⁾ “‘참된’ 것과 ‘참된 것과 유사한’ 것을 통찰하는 일은 하나의 동일한 능력의 소관이기 때문이다”는 바로 그 후속 문장이다. 이리러하기 ‘때문’(gar)이라면서 앞 문장의 근거가 제시된다. 여기서 눈 여겨 봐야 할 점은 변증법과 수사학 간의 차이가 ‘참된’ 것과 ‘참된 것과 유사한’ 것의 대비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다.¹⁵⁾ 그렇다면 변증법과 수사학 간의 차이가 양자가 각각 ‘참된’ 것과 ‘참된 것과 유사한’ 것을 관장한다는 것을 통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지금까지의 논의에 비추면 ‘참된 것과 유사하기만 할 뿐인’ 것이 수사학의 관할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문제는 ‘참된’ 것을 변증법과 연결시키는 데에 있다. 주지하다시피 변증법이라는 것이 ‘널리 인정받는’ 명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해결책은 위에서 인용했듯이 쿠퍼처럼 ‘참된’ 것과 변증법의 연결 관계를 제한적으로 (“제한된 의미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명제를 놓고서 그것

14) 여기서 수사학과 변증법의 차이란 수사학의 특수성을 의미하고 수사학의 특수성이란 다시금 공적연설의 조건을 가리킨다. 공적연설의 주제는 변증법이나 이론철학의 주제와 달리 필연적이고 불변적인 것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다른 식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들이다. 또 하나는 청자 요인이다. 심의(審議)연설의 청자는 민회 의원이고 사정(司正)연설의 청자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다. 훈련되지 않은, 전문성이 없는 일반 시민이기에 추론이 길게 이어지면 따라잡는 데 어려움이 많다(1357a3-4). 지적인 정도 역시 균일하지 않다. 그러기에 수사추론은 학적 증명과 같은 정도로 정밀한 필요가 없고 통상적인 변증법적 논변보다 상대적으로 짧아야 한다. 이 같은 공적연설의 조건과 관련해서는 한석환, 『설득은 수사학의 일이 아닌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수사학의 전문성』, 『리버럴아츠』 창간호, 2021 (12월 31일 발행 예정) 참조.

15) Rapp, 앞의 책, II 78.

이 참되다고 증명할 수는 없을지라도, 수사학과 달리, 변증법은 명제와 논변을 ‘진리와 관련지어’ 검토할 수는 있다고 (유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실로 변증법은 ‘널리 인정받는’ (일단의) 명제들을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내 보일 수도 있고 논변들의 수미일관성을 체크할 수도 있다.

이 같은 변증법에 비하여 수사학은 설득력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바, 설득력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참된’ 것과 ‘유사’할 따름이다. 또 (변증법과는 달리) 수사학은 설득력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명제들의 진리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유보적으로조차 그렇다). 변증법이 진리와 연결되는 여지가 없지 않은 반면 수사학은 설득력과 관련이 있거니와 설득력 있는 것이란 참된 것과 유사한 어떤 것이다.

연역(철로기스모스)의 전문가, 즉 변증법·전문가는 수사학의 특수성을 고려할 줄 안다면 수사추론(엔튀메마)에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 “‘참된’ 것과 ‘참된 것과 유사한’ 것을 통찰하는 일은 동일한 한 가지 능력의 소관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참된’ 것을 통찰하는 일은 변증법의 관할이고 ‘참된 것과 유사한’ 것을 통찰하는 일은 수사학의 소관사라는 뜻이다. 연역과 수사추론이 같은 능력의 소관사이기 때문이다. 차이라면 단지 공격연설의 특수성이 반영되었는가(여부)뿐이다.

Ⅲ. ‘기술’로서의 수사학

무엇인가를 설득적이라고 인정하는 청자에게만 그 무엇이 설득력을 가진다. 청자가 다르면 설득력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설득력이 청자 요인으로 인하여 상대적이라고 하더라도 한도 끝도 없이 상대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한정되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수사학의 학적 고구의 대상이 되지 못할 것이다.

[R4] 기술은 그 어떤 것이든 특수한 것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 일례로 의술은 소크라테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칼리아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탐구의) 목표로 삼지 않는다. 그것은 이리이러한 체질의 사람이나 이리이러한 체질의 사람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탐구의 목표로 삼는다). 기술적(*entechnon*)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걸 두고서 하는 말이다. 반면 특수한 것은 무한정하다. 그것은 학적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수사학 역시 마찬가지(이다).(1356b28-32)

무엇이 누구에게 설득력 있는가. 이 같은 물음과 관련하여 수사학은 학인 한에서 특수한 것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게 규정할 수 없다. 수사학의 경우 파악이 가능한 대상은 ‘이리이러한 성향의’ 청자 그룹에 설득적인 것이다. 그들에게 인정받는 혹은 받아들여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설득의 물음과 관련하여 하나의 기술학이 성립 가능한지의 물음이 『수사학』의 첫머리에서 검토된다(1354a6-11). 공적인 자리에서 연설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일부가 다른 일부보다 상대적으로 성공률이 높다. 또 마구잡이로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해치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습득한 능력과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일부는 성공적이고 다른 일부는 성공적이지 못한지 그 이유를 밝혀낼 수 있다. 그런 일련의 작업을 통해 공적연설의 설득력과 관련하여 원인과 원리의 파악에 성공한다면 우리는 하나의 이론을 구축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공적연설에서 발휘되는 설득력의 기술, 즉 수사기술이 수립되는 내력이다.

기술에서 중요한 것은 사태를 보편 개념으로 기술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기술의 바탕은 경험이다. 경험이 기술로 승격되게 하려면 보편적 앎이 필요하다. 사태를 보편적인 개념으로 기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그냥 경험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술하게 많은 경험의 인상을 토대로 인상들 간에 모종의 유사함이 존립한다는 하나의 보편적 상정이 만들어질 때 기술이 성립한다(*Met.* 981a5-7). 일례로 특정의 약제를 써서 개별 인물이 효과를 보았다는 것은 아직 경험의 문제이다. 그러나 문제의 약제가 하나의 종개념 아래 포섭되는 특정 체질의 환자들에게 주효했다고 파악하는 것은 이미 기술을 가졌다는 증거이다(981a10). 이 같은

사태에 대입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의 수사학 교사들의 물기술적 행태는 다음과 같은 식이었을 것 같다. 규칙성이 없지 않은 명제와 행동양식을 적용한다. 청중 가운데서 모종의 반응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그럼에도 수사학 교사들은 문제의 발언과 상황과 작용을 관통하는 공통점을 특정하지 못한다. 그 결과 개별적인 경우 ‘갑’에서 쓰던 전략을 그와 유사한 다른 개별적인 경우 ‘을’에 전용은 하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지의) 개별적 경우에 하나의 보편적인 사태를 적용할 줄은 모른다.¹⁶⁾ 아직 기술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탓이다.

보편개념 외에 기술을 규정하는 또 하나의 징표는 이유를 포착하는 일이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앞서 말한 보편적 공통성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양자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경험만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어떠어떠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왜 그런지) 이유는 알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기술을 구비하고 있는) 다른 이들은 이유와 근거를 안다.”(*Met.* 981a27-30) 기술이 근거의 탐구를 과제로 삼는 소이다. 수사학의 경우 학적 과제는 설득력(있음)의 원인과 원리를 탐구하는 일이다(1355b10-11; 1355b26-28).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에서 “다소간에 (정도의 차이가 없지만 그렇더라도) 우리는 기술을 경험이라기보다는 학(*epistēmē*)이라고 생각한다”(981b8-9)고 말한다. 이로 미루어 본다면 ‘기술’은 ‘학’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그 둘이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981b14.17.24). 그러나 이것은 (광의의) 대중적인 의미의 기술 개념이다. (협의의) 전문적인 의미의 기술 개념은 『니코마코스 윤리학』 VI권 4장에서 상론된다. 전문적인 의미의 기술은 학과도 구별되고 행동을 관할하는 인지능력하고도 구별된다. 먼저 학하고는 대상에서 차이가 난다. 학에서 다루지는 대상은 ‘다른 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1139b20). 필연성, 영원성, 불변성을 지닌 것이다. 그에 반하여 기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른 식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다(1140a2).

16) Rapp, 위의 책, II 28.

다른 식으로도 있을 수 있는 것과는 제작(*poiēsis*)이 관련될 수도 있고 행동(*praxis*)이 관련될 수도 있다. 기술의 관할에 속하는 것은 제작과 관련하여 ‘다른 식으로도 있을 수 있는’ 것뿐이다. 행동과 관련하여 ‘다른 식으로도 있을 수 있는’ 것은 ‘사려분별’(*phronēsis*)의 소관이다. 한편 제작과 행동은 다른 식으로도 있을 수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나 제작(일례로 구두제작)의 경우 결과물(구두)이 제작과정(구두제작)에서 떨어져 나와 존재하지만 행동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일례로 용기있는 행동의 경우 용기라는 덕은 해당 행동에 ‘박혀’ 있다. 기술은 이처럼 학(이론)하고도 구별되고 사려분별(실천)하고도 구별된다. 『니코마코스 윤리학』 VI권 4장의 규정에 따르면 기술은 ‘바른’ 이성과 연계된, 제작과 관련된, 확고하게 틀 잡힌 태도(*hexis*)이다(1140a10). 수사학이 학이 아니라 기술로 간주되는 이유는 이와 같이 ① 학과 달리 개연적인 것, 가변적인 것에 관계하기 때문이고 ② 행동이 아니라 제작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IV. 맺음말: 수사학의 학적 독자성

설득력의 물음: ‘설득력 있어 보일 뿐인’ 것 역시 수사학의 소관사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언급은 자연스럽게 설득력 있는 것은 무엇인가의 물음으로 이어졌다. 한편 설득력 있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참된 것과 구조적으로 평행선을 그린다. 하지만 그것은 청자 요인에 의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참된 것(진리)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설득력 있다는 것은 늘 청자를 예상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인정받는다라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한편 이 같은 설득력(있음)과 인정받음의 연계성을 근거로 ‘설득력 있어 보일 뿐인’ 것이 어떤 것인지 유추할 수 있다. 쟁론술적 추론에 동원되는 걸로 널리 인정받는 것 같이 보이는 의견이 걸로로만 그러할 뿐 실은 인정받지 못하는 의견이듯이 걸로로 설득력 있어 보이는 것 역시 걸로로만 그러할 뿐 실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이상을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1) 설득력 있어 보일 뿐인 것에는 오로지 청자 요인만 반영되어 있다.
- (2) 참된 것에는 오로지 사안 요인만 반영되어 있다.
- (3) 설득력 있는 것에는 사안 요인과 청자 요인이 함께 반영되어 있다.

‘기술적 기만’: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겉으로 설득력 있어 보일 뿐인 것과 설득력 있는 것을 통찰하는 일은 동일한 능력의 소관이다. 한편 겉으로 설득력 있어 보일 뿐인 것에는 기만의 계가가 묻어 들어가 있기에 저와 같은 관찰과 관련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은 기만의 물음이 수사학의 전문성의 영역에 포함되는 결과를 낳고 그로써 중국에는 수사학의 오용의 물음이 제기된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오용은 의지적 선택의 문제이지 학적 전문성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는다. 오용의 여지를 원칙적으로 차단한다.

그가 기만을 수사학의 전문성의 범위 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기만을 실로 행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거꾸로 기만을 기술적 통제가 가능한 범위 안에 묶어둠으로써 투명하게 한다. 반면 상대방이 기만을 획책하는 경우 그 조짐을 간파해냄으로써 상대방의 농간에 넘어가지 않으려는 자구책이기도 하다.

수사학의 학적 정초: 겉으로 설득력 있어 보일 뿐인 것과 설득력 있는 것을 통찰하는 일이 동일한 능력의 소관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언급의 요체는 설득력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설득력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실은 설득력이 없는 ‘무늬만의 설득인자’와 대비시켜 놓고 볼 때 판명하게 드러난다는 데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설득력 있어 보이긴 하지만 실은 설득력 없는 것 역시 수사학에서 요긴하게 다뤄질 사안인 것이다. 의학의 목표가 건강의 회복 및 증진과 관련된 제반 사항의 탐구라고 할진대 질병의 증상과 원인의 탐구가 필수적이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수사학의 소관사를 위와 같이 규정됨으로써, 그리하여 설득력(있음)이

무엇인가가 명확히 드러남으로써 수사학이 하나의 기술학으로 확고하게 정초된다. 수사학의 학적 독자성이 확립되는 것이다. 수사학의 학적 전문성이 인용됨으로써 그것이 기만이나 농하는 사이버기술이라는 (플라톤) 유의 비판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다. 그렇긴 하지만 그것이 (앎을 위한 앎을 추구하는) 이론학과 같은 의미의 학은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수사학은 설득력(있음)의 개념을 통해 특징지어지는 독자적인 위상의 기술학이다.

참고문헌

- 한석환, 「설득은 수사학의 일이 아닌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수사학의 전문성」, 『리버럴아츠』 창간호 (동국대학교 다르마교양교육연구소, 2021년 12월 31일 발행 예정).
- Bekker, I., *Aristotelis Opera*, 2 Bde. Berlin: Reimer, 1831. Reprint, 1970.
- Burnet, J., *Platonis Opera*. 5 vol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00-1905.
- Cooper, John, “Ethical-Political Theory in Aristotle’s *Rhetoric*”, in: Furley & Nehamas 1994, 193-210.
- Furley, David J. & Nehamas, Alexander, *Aristotle’s Rhetoric. Philosophical Essay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1994.
- Irwin, Terrence H., “Plato’s Objection to the Sophists.” *The Greek World*. London: Routledge, 1995.
- Kassel, Rudolf. *Aristotelis Ars Rhetorica*. Berlin: de Gruyter, 1976.
- Kennedy, George A., *Aristotle, On Rhetoric. A Theory of Civic Discourse*. Translated with introduction, notes, and appendices, Oxford/New York: Oxford University, 2007.
- Rapp, Christof, *Aristoteles. Rhetorik. Übersetzung, Einleitung und Kommentar*. 2 Bde. Berlin: Akademie, 2002.
- Reeve, C. D. C., *Aristotle. Rhetoric*, Translation with an Introduction and Notes, Indianapolis/Cambridge: Hackett Publishing, 2018.
- Wagner, Tim & Rapp, Christof, *Aristoteles. Topik. Übersetzung und Kommentar*. Stuttgart: Reclam, 2004.

<Abstract>

Is the art of rhetoric also responsible for the only apparently persuasive?

-The epistemic status of the persuasive in Aristotle's *Rhetoric*-

Hahn, Seokwhan

Aristotle is of the opinion that it is a function of one and the same art to see both the persuasive and the only apparently persuasive. It is not strange that it is the job of rhetoric as a art to investigate the persuasive. But it fails to convince us readily that rhetoric is also responsible for the only apparently persuasive. With the responsibility of rhetoric for the only apparently persuasive, deception also falls within its area of competence, if the only apparently persuasive is something that is persuasive at first glance, but loses the character of persuasiveness as soon as one takes a closer look. Such a responsibility of rhetoric leads to ultimately the possibility of misuse. Here the question arises why Aristotle also makes rhetoric responsible for the only apparently persuasive, which is the task of this essay.

First it is examined what is the only apparently persuasive, then what is the technical deception. And it must be clarified how the persuasive differs from the true in order to understand the persuasive, which is the task of rhetoric. This is why the true and what is like the truth come up. At the end it is clarified what the persuasive consists in and where it is epistemically placed. It is a by-product of grasping the art of rhetoric.

Keywords: the (only apparently) persuasive, the possibility of misuse (of rhetoric), rhetorical competence, technical deception, the true and what is like the truth